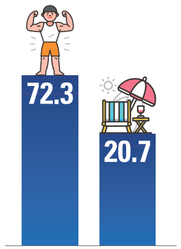
산림휴양·복지활동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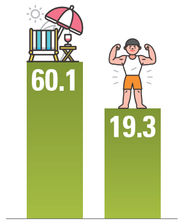
• 일상형은 '건강증진', 당일형 및 숙박형은 '휴양 및 휴식'을 목적으로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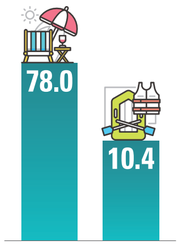
일상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

당일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

숙박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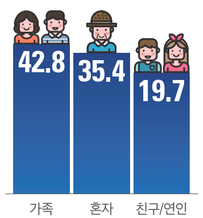


산림휴양·복지활동 동행자 및 소비금액

• 전반적으로 '가족'과 함께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경험
• 산림휴양·복지활동 시 당일형은 6.0만 원을, 숙박형은 15.6만 원을 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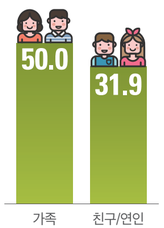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일상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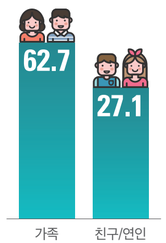
당일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1회 기준 1인 평균 : 6.0만 원



숙박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1회 기준 1인 평균 : 15.6만 원
(1박 2일 : 69.4%)



산림휴양·복지활동 유형별 경험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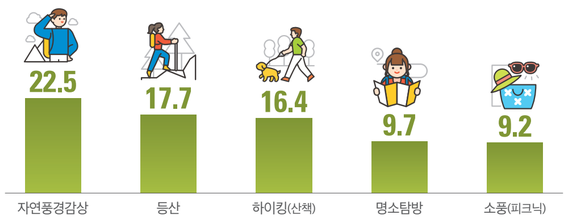
• 산림휴양·복지활동 유형별 경험률은 당일형(51.1%) > 일상형(47.6%) > 숙박형(30.0%) 순
•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으로 '자연풍경감상'이 가장 많이 경험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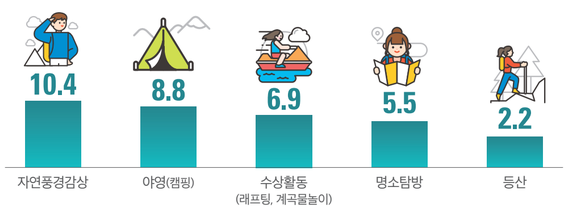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당일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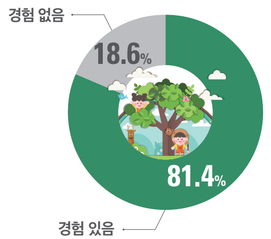
숙박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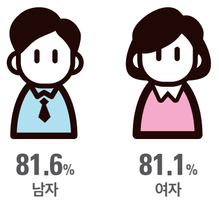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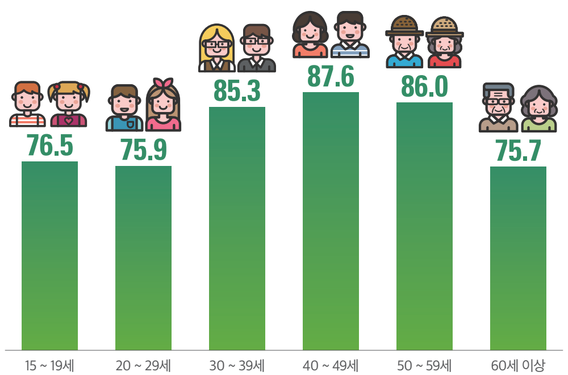
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률

• 지난 1년간(2019년 1~12월)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의 81.4%가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
• 40~49세의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률이 87.6%로 가장 높아





(단위 : %)



2020
산림휴양·복지활동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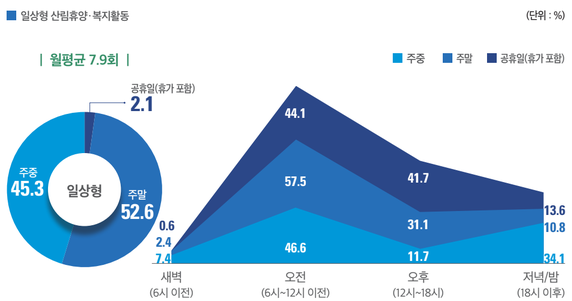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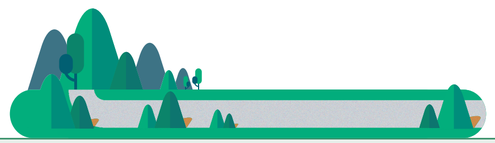
산림청

한국산림복지진흥원
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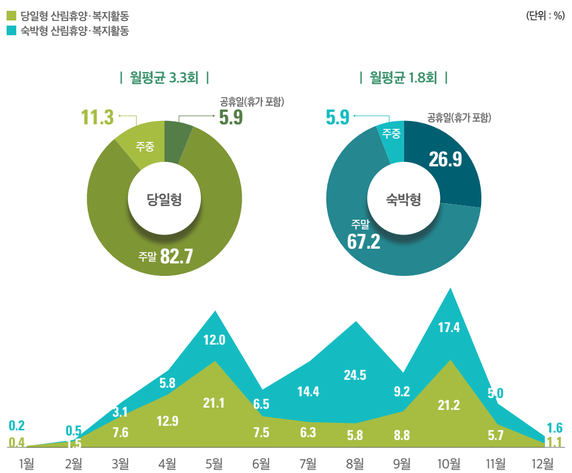
산림휴양·복지활동 시기 및 활동횟수

- 일상형은 '주중 또는 주말'에, 당일형 및 숙박형은 '주말'에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경험
- 활동 횟수는 일상형(월평균 7.9회) > 당일형(연평균 3.3회) > 숙박형(연평균 1.8회) 순
- 일상형은 주로 오전 또는 주중 저녁/밤 시간대에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





- 당일형은 5월, 10월에, 숙박형은 5월, 8월, 10월에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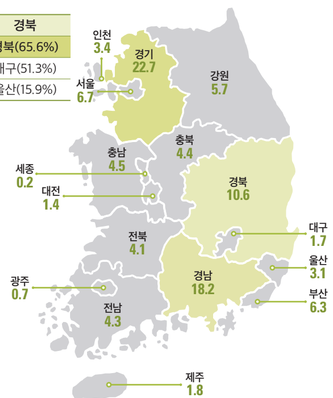
산림휴양·복지활동 지역

- 당일형은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위해 경기, 경남, 경북 등의 지역을 주로 방문
- 숙박형은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위해 강원, 경기, 경남 등의 지역을 주로 방문

당일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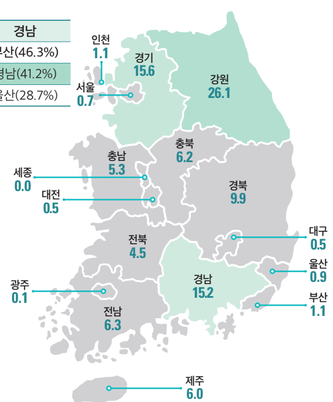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	방문지		
	경기	경남	경북
거주지	경기(63.2%)	경남(72.7%)	경북(65.6%)
	서울(46.2%)	부산(45.3%)	대구(51.3%)
	인천(45.1%)	울산(21.7%)	울산(15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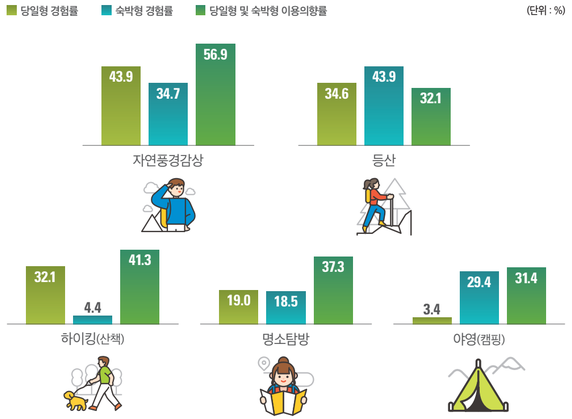
숙박형 산림휴양·복지활동

	방문지		
	강원	경기	경남
거주지	강원(61.9%)	강원(33.7%)	부산(46.3%)
	인천(38.2%)	경기(31.5%)	경남(41.2%)
	서울(37.2%)	서울(22.9%)	울산(28.7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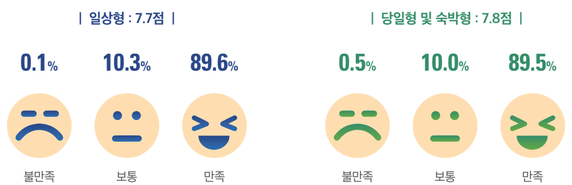


산림휴양·복지활동 종류 및 향후이용의향률



산림휴양·복지활동 만족도

-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자 중 89.5% 이상이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에 대해 만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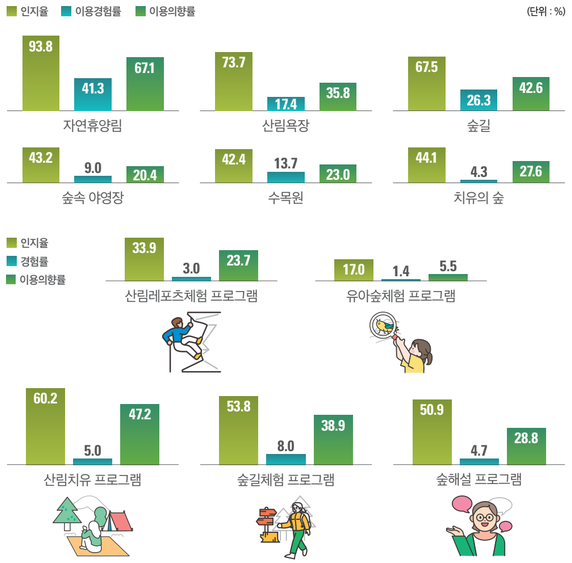
산림휴양·복지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

- 산림휴양·복지활동 경험자 중 97.2%가 산림휴양·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



산림휴양·복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

- 산림휴양·복지 시설 중 자연휴양림의 인지율, 이용경험률, 이용의향률 등이 가장 높아
- 산림휴양·복지 프로그램 중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인지율, 이용의향률 등이 가장 높아



지난 1년간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

- 지난 1년간 '시간이 없어서', '흥미가 없어서' 산림휴양·복지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

